

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김지은

글자를 막 깨우쳤던 유년시절에 읽은, 지금 내 또래 아이들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면 ‘아, 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있다. 바로 쉐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통 나무들의 성질이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책이라 기억 한 구석에 항상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수기를 쓰면서 또 하나의 나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려 한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도서관!’ 지역마다, 동네마다 존재하는 도서관은 생김새도 예쁘고 형형색색이다. 어린 시절 생김새에 끌려서 왔던 동네 도서관부터 머리가 어느 정도 여물어 생김새가 아닌 필요에 의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도서관은 언제나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난생 처음 도서관에 발을 들인 건 엄마와 함께였다. 세상에나, 우리 집에 있는 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책이 한눈에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친절한 우리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나를 위해 아이들이 읽기 쉬운 동화책 코너로 안내해 주셨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다름 아닌 나였다. 난생 처음 보는 책부터 낱익은 동화책들까지. 아무데나 털썩 앉아서 이런 저런 책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책 한 권을 꼬아 빌렸다. 책을 대출하는 제도도 처음 알았었다. 책을 사지도 않고 집에 가져가 식탁에서 볼 수 있다니! 이러한 도서관의 첫인상은 완전 ‘호감’이었다. 그 뒤에도 종종 도서관을 갔었는데 아마 인생에 통틀어서 제일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또 그 당시 도서관에서 웃기지만 슬픈 사건도 있었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도서관 (특히 아동코너) 외형은 알록달록하고 예쁘다. 책상과 의자는 학교에 있는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기차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당시에는 도서관 안에 기차가 있어 너무 신기했던 나머지 놀이터에서 노는 것 마냥 남동생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결국 사서 선생님께 잔뜩 혼나고 유치원에서도 잘 혼나지 않는 모범생인 내가 혼났다는 거에만 집중하여 엉엉 울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 때 이후로 그 도서관에는 발이 뚫해졌던 거 같다. 어릴 적 작은 트라우마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유년시절 도서관은 나에게 호기심, 알록달록한 화려함으로 다가와 친근해지고 사서 선생님께 호되게 혼났다는 이유로 이별한 ‘구 남친’같은 존재이다.

본격적으로 도서관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해준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다. 몸과 마음이 커져갔지만 시간은 이상하게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핑계처럼 보이지만 자율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은 많지 않았다. 많아 봤자 학교에서 시행한 필독 도서가 독서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선생님들은 항상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학창 시절이 가장 책 읽기 좋은 시기라고. 그 당시엔 몰랐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공부만 하기에 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책?’이라는 생각으로 책과는 조금 소원해졌다.

그런데 도서관이랑은 어떻게 다시 친해졌냐고? 책을 못 읽게 만들었던 공부 때문에 다시 도서관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에 학교 보충 대신 도서관을 선택하게 되면서 내 생각은 180도로 바뀌었다. 고2 방학 때까지만 해도 학교 보충을 들으며 꾸벅꾸벅 졸았지만 고3이 되면서 ‘진정으로 학교 보충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고찰하게 되었다. 많은 고민을 해본 결과 보충은 이 중요한 시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됨을 인지하고 과감히 보충을 신청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님께서도 그런 나에게 도박을 거는 거라고 하시고 그 말에 자극을 받았던 나와 친구는 매일 동네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내가 다녔던 동네 도서관은 위치도 좋았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요건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찍 도착해 있어야 했다. 도서관은 7시에 열리는데 친구와 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을 7시 5분 전에 도착하여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열람실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 지금 그 짓을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고 3 특유한 간절함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매일 도서관을 출석하다 보면 낮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마련이다. 말을 서로 주고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절박함으로 머리를 스님처럼 밀어버린 사법 고시생 남자 분부터 시작해서 나도 언젠가 공부해야 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옆자리 예비 선생님, 항상 휴게실에 가면 있던 짜증나는 커플까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가끔 이 도서관을 오면 ‘스님 고시생 분은 합격하셨을까?’, ‘예비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 되셨을까?’, ‘그 커플은 아직도 건재할까?’ 등 생각이 뜨문뜨문 든다.

감사한 인연도 만났다. 도서관 앞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이 질릴 때쯤 친구와 나는 신호등을 건너 한 국수 집으로 갔었다. 국수 집 주인이신 아주머니께서는 당신 딸과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정말 친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서비스도 많이 주셨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 개학하기 하루 전에 작지만 비타민 드링크 한 상자를 선물로 드렸다. 무엇을 바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며 손치래 치시던

아주머니의 얼굴에 핀 미소를 보았을 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와 닿았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종종 그 가게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국수를 먹고 싶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기 싫던 도서관이어도 어둑해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올 땐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뿌듯한 마음을 담고 친구와 함께 집에 갔던 기억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나에게 있어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자 작은 열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의 힘이 작용하여 원하는 과에 진학한 대학생이 되었다. 아직 학교에서는 제일 막내지만 거의 1년을 다녀보니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는 역시 학교 내 도서관이다. 모두 밖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놀지만 학교 내 도서관에 들어가면 지하 열람실부터 각 층의 도서관 모두 꿈을 향해, 정적으로 보이지만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달리고 있는 청춘들이 존재한다. 고등학교에서 봤던 도서관에 비하면 대학교의 도서관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하다. 동네 도서관만큼이나 커다란 학교 도서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바라보기만 해도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내가 갈 수 있는 도서관의 폭이 커졌다는 사실은 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준다.

공기가 답답한 장소를 어릴 적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공부는 지하실이 아닌 3층 인문과학실에서 주로 하는 편이다. 급박한 마음에 정신없이 공부하다가도 빠근한 몸을 풀려고 고개를 들면 앞에는 학교 정원이 펼쳐진다. 학교 정원은 해가 질 때 최고의 풍경을 보여준다. 한참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마인드로 돌아가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즐거움은 학문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공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감정들과 사람들의 열정이 모이는 과정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나의 머리에 교양을 쌓아 주는 장소, 열정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장소.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 수 있다. 아낌 없이 주는 곳에서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것이 도서관에서 배운 최고의 교훈이자 인생의 모토이다. 고마워, 아낌없이 주는 나의 나무!